

# 여수,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 나선다

## LOCAL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정 추진...특수법인 전환 운영 경기·강원·호남 3개 권역 검토...문화도시 브랜드 강화

여수시가 문화예술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적극 나선다.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국립미술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의 법적 성격을 '문화재단'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운영체제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하는 방식의 새로운 운영모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경기북부와 강원, 호남 등 전국 3개 권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내년에는 '각 권역별 국립미술관 건립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분관 후보지 선정 시에는 미술관 부지 확보 가능성과 운영비 분담 의지, 권역 내 거점도시로서의 기능 수행 가능성 등 다양한 지표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여수시는 평가 기준에 부합하고 문화예술 기반과 공간적 여건을 갖췄다는 평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는 여수세계박람회장 주제관.

다. 특히 최근 한국미술협회 여수지부 관계자들이 정기명 여수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고 "여수세계박람회장 주제관 분관 유치 후보지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유류공간의 재활용을 통한 공간 리사이클링 및 도시재생'이라는 정부 정

책 방향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차별화된 문화시설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수시 역시 해양도시 특성과 풍부한 문화자원을 토대로 분관 유치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 흐름에 맞춰 '수요조사 대응 전략 및 여수만의 문화 정체성을 반영한 유치 논리를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는 여수의 문화도시 브랜드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계와의 협업은 물론,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유치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kwangnam.co.kr

### 장흥, 조생종 벼 첫 모내기 '조명 1호' 8월 말 수확 예정

장흥군은 최근 장흥읍 연산리 일원에서 올해 조생종 벼 조기재배 첫 모내기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조기재배는 조생종 품종을 이른 봄에 보온 육묘해 모내기를 일찍 함으로써 벼의 수확을 앞당기는 재배법이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9월 태풍 등 자연재해의 회피와 추석 전 햅쌀시장의 선점 등으로 가격 경쟁력 향상과 농민기질 노동력을 분산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저온으로 인한 생장기 육묘 및 물과 양분 관리, 병해충 방제 등에 유의해 초기에 빠르고 안정적인 생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농가의 관심이 필요하다. 조생종 벼 조명 1호(전남 3호)는 법맛이 좋고 쓰러짐과 수발이에 강한 품종으로 지난 2015년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해 보급한 조생종 품종이다. 첫 모내기를 실시한 임병석 농가는 정남진농업RPC과 전량 계약재배로 오는 8월 말에 수확해 출하할 예정이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벼 조기재배를 통해 태풍과 병해충 피해를 줄여 농가 소득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농가 재배 현장 기술 지도와 정기 병해충 방제 지원에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영수 기자 jms050311@

### 고흥, 소아청소년과 진료 재개 종합병원서 운영...불편 해소

고흥군은 최근 고흥종합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재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고흥군 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재로 인해 진료가 중단되면서, 자녀 진료를 위해 인근 도시로 이동해야 했던 지역 학부모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로 고흥종합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진료 재개에는 고흥사랑가부제를 통해 모인 기부금이 큰 역할로 작용했다. 이 기부금은 소아청소년과 운영기관에 지원돼, 전문 의료인력 확보 및 의료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의 미래인 아이들이 지역 내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 담양홍보기자단, 대나무축제 홍보 총력 귀농·귀촌인 등 30명 활동...기사 무료 제공

담양홍보기자단이 관광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2025 담양 대나무축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4일 밝혔다. 담양홍보기자단은 담양군 농업기술센터의 언론홍보 전문가 양성 교육(홍보디렉터 과정)을 수료한 군민, 귀농·귀촌인 30여명이 활동 중이다. 현재 지역 소식과 축제 현장을 직접 취재해 뉴스 콘텐츠로 생산한 뒤 인터넷에 송고하고 있다. 지난해 제23회 대나무축제에서도 기자단은 총 148건의 기사를 생산하며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다. 올해 제24회 대나무축제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죽녹원 일대에서 5일간

개최되며, 홍보기자단의 두 번째 단체 봉사활동 무대가 될 예정이다. 이들은 축제 현장에서 관광객을 인터뷰하고, 기사로 작성한 후 프린트, 코팅된 기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특별한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담양을 찾는 관광객에게는 평생 기억될 뉴스 속 추억을 선물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경 기자단장은 "농촌에 살면서 글을 쓰는 일은 인생의 행복을 세 배로 높이는 변화다"며 "중요한 건 군민의 시선에서 담양을 담아내는 일이다"고 말했다. 담양=조성용 기자 jnwnews@



장흥군은 최근 장흥읍 연산리 일원에서 올해 조생종 벼 조기재배 첫 모내기를 실시했다.

## 순천, 안부 살핌부터 응급 대응까지 '한번에'

### 순천케어콜·순천살핌 안녕 앱·AI앰블런스 도입 등

순천시가 복지, 의료,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하며, 안부도 살피고 생명을 구하는 스마트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24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대화형 AI '순천 케어콜'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가구에 매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정서적 위안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이전 대화를 기억해 맞춤형 대화를 이어가며, 단순한 안부를 넘어 마음까지 살피는 '진절할 AI 복지사'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활용한 '순천살핌 안녕 앱'과 가전제품 사용 여부를 감지

해 응급 상황을 파악하는 '스마트 돌봄 플러그'도 운영 중이다. 현재 2800여명의 시민들이 AI 안부 살핌 케어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AI앰블런스' 시스템을 도입해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AI가 자동으로 최적의 병원을 연결하고 최단 경로를 안내함으로써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이송·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리가 가능하다. 시는 앞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새

롭게 지정된 순천중앙병원 등으로 AI앰블런스 시범 운영기관을 확대하고,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성가톨릭병원 주도로 다양한 응급 사례를 반영하는 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응급의료기관과 소방서간 협력을 통한 상호성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대민 행정 서비스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 누리집에는 24시간 상담 가능한 AI 챗봇 '이루미'를 운영 중이며, 외국어 실시간 번역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 중심의 공동체 돌봄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kwangnam.co.kr

## 화순 청춘신작로 버스킹 참가자 모집

화순군은 오는 9월 30일까지 청춘신작로 버스킹 공연을 펼칠 재능 있는 참가자·단체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버스킹 공연은 5월 16일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청춘신작로 어울림광장(화순읍 자치센터 49-2)에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 7세부터 30세까지의 개인 또는 단체로 대중가요·밴드·싱어송라이터 등 버스킹 공연뿐 아니라 자유 발언이 가능한 5분 자유스피치 분야도 신설돼 참여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단, 상업·정치·종교적 내용은 제한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군청 또는 청춘들라누리집에 게시된모집공고의 QR코드를 스캔해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30초 이내의 연습 또는 공연영상, 자유스피치 발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통과한 공연 참가자에 대한 사례비는 초등학생 1인당 3만원, 최대 30만원, 중·고등학생은 1인당 5만원, 최대 35만원, 대학생·일반인은 1인당 10만원, 최대 50만원이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kwangnam.co.kr



kidp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NACOS

영리·합의·협력·제보·새  
나눔·공정·투명·책임

종합광고솔루션 - 나코스(유) 상무지구구름다리 옆

## 062) 376-5425

NAVER 나코스